

# SK '넷제로' 조기달성 고배... 친환경 캠페인 전사적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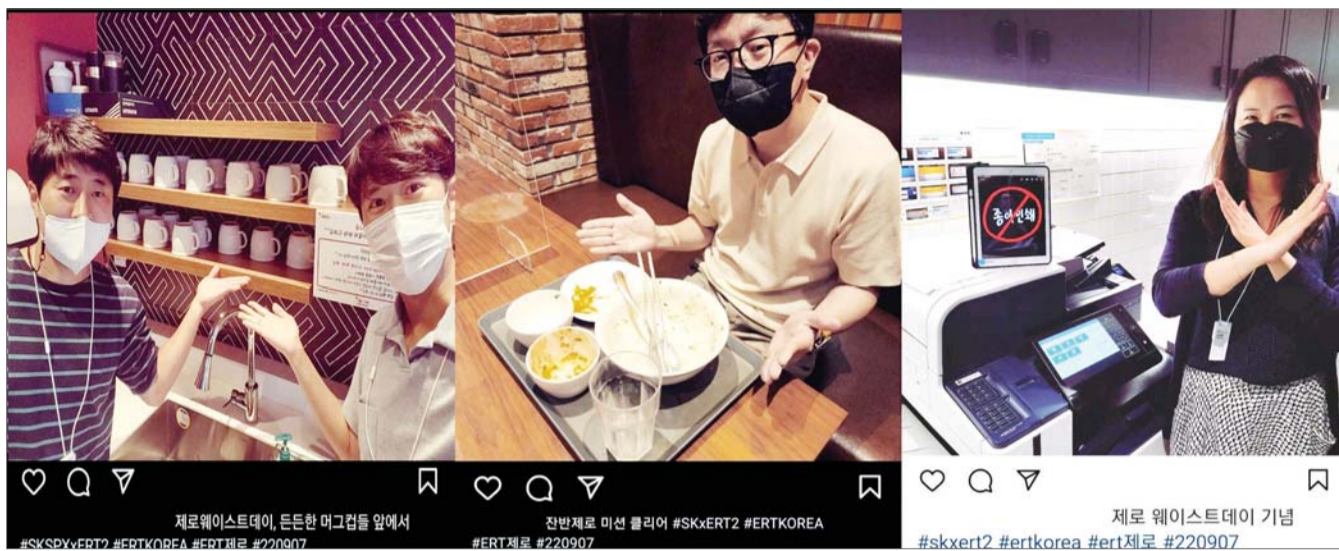
UN 지정 '푸른 하늘의 날' 맞아 전국 사옥서 쓰레기 없는날 진행 다회용컵·재활용품 사용하기 등 개인 SNS에 인증하며 서로 격려 '탄소 줄이고, 자원 돌리고' 행사도

SK가 전사적으로 ESG 경영의 일환인 친환경 활동 캠페인을 확대하고 나섰다.

SK가 7일 유엔(UN)이 정한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각 관계사 전국 사옥에서 '쓰레기 없는 날' (Zero Waste Day) 챌린지에 전사적으로 동참했다. 또 친환경 경영 일환으로 올 연말까지 '탄소 줄이고, 자원 돌리고'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SK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주도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 Entrepreneurship Round Table)가 경제계 공동 챌린지로 제안한 '쓰레기 없는 날' 행사에 서울 종로 SK서린빌딩과 을지로 T타워, 경기 이천과 충북 청주 SK하이닉스 빌딩 등 SK 관계사 전국 사옥에서 구성원들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구성원들은 각 사옥에서 ▲잔반 남기지 않기 ▲다회용컵 사용하기 ▲재활용·재사용제품 사용하기 ▲페이퍼리스



SK 구성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쓰레기 없는 날'(Zero Waste Day) 챌린지에 참여한 뒤 SNS에 올린 인증샷 /SK

(Paperless) 실천 등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친환경 활동을 벌였고, 이를 개인 SNS에 인증하면서 서로를 격려했다. 이날 구내식당에서 잔반 없이 음식을 깨끗이 비운 식기 인증샷들이 잇따라 올라왔고, 팀 단위의 텀블러·머그잔 사용 결의, 종고물품 기부, 다회용기 음식 포장 등과 관련된 인증샷들도 많이 공유됐다.

그동안에도 SK는 지속가능 성장 및 사회를 위한 ESG 경영을 추구하고, 특히 ▲2050년 이전넷제로 달성 ▲2030년 기준 전 세계 탄소감축 목표량 (210억톤)의 1%를 SK가 감축 등 친환

경 경영을 적극 추진 중이다. SK 한 구성원은 "우리 구성원들의 이번 챌린지 참여가 제로 웨이스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참여를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른 구성원은 "오늘 행사에 참여하면서 SK가 올 연말까지 자체적으로 진행할 친환경 캠페인에 더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SK는 자체 챌린지인 '탄소 줄이고, 자원 돌리고' 캠페인을 연말까지 진행, 구성원들이 친환경 실천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한다.

캠페인은 각 관계사 별 프로그램과 그룹 프로그램을 통해 '따로 또 같이' 진행된다.

SK하이닉스는 각 사옥에 투명페트병 무인 수거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수거기는 비전(Vision) AI 기술 등을 적용해 SK텔레콤과 공동개발한 것으로 라벨이 제거된 투명 페트병만 담을 수 있다. 페트병 1개당 구성원에게 50원씩을 적립해 줌으로써 참여를 독려한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재활용 페트병을 사용하면 탄소배출을 80% 가량 줄일 수 있다"며 "구성원 참여가 이어진

다면 페트병 수거기 운영 기간도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실트론은 에코백, 텀블러, 종이백 등을 구성원들로부터 기부받아, 사회적 기업의 업사이클링 기술을 통해 새 제품을 만든 후 취약계층 아동에 전달하는 등의 캠페인을 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산(山)과 바다(海)를 참(眞)으로 아름답게(美) 표어'를 내걸은 '산해진미 플로깅'을 통한 환경봉사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SKC는 일상 속 플라스틱 제품의 바코드를 찍으면 포장재 소재 정보와 재활용 방법 등을 알려주는 '마이 그린 플레이스' 앱을 출시하고, 앱에 등록되지 않은 제품은 소비자들이 직접 제보하고 자원순환 문화 확산에 동참하는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SK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캠페인에 참여한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친환경 활동을 SK㈜ C&C가 개발한 모바일 앱 '행가래' (행복을 더하는 내일)에 기록함으로써 캠페인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총량을 확인할 수 있다"며 "회사는 구성원들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 총액만큼 매칭펀드를 조성해 기후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후원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 효성티앤씨, 국내 최초 수소차 소재용 나일론 개발 성공

기존 금속소재 대비 70% 가벼워 해외업체 독점 국내시장 진입 기대

효성티앤씨가 나일론을 수소 산업 필수 소재로 진화시켰다.

효성티앤씨는 국내 최초로 수소차 연료탱크 라이너 소재용 나일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데 성공했다고 7일 밝혔다. 라이너는 수소 연료탱크 내부 용기를 가리킨다. 수소를 저장하고 누출을 방지하는데 핵심 부품이다.

효성티앤씨는 금속 및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보다 가볍고 가스차단성 및 내충격성이 우수한 나일론 성질을 이용해 라이너를 만들어냈다.

효성이 만든 나일론 라이너 소재는 기존 금속 소재 대비 70%, HDPE 소재



효성티앤씨는 국내 기업 최초 독자기술로 수소차 연료탱크의 라이너 소재용 나일론을 개발 및 활용하는데 성공했다. 지난 8월 열린 수소전문전시회 H2 MEET에서 나일론 라이너 수지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효성

대비 50% 가볍고, 수소 가스의 누출을 막는 가스차단성도 기존 금속 소재 대비 30% 이상, HDPE 소재 대비 50% 이상 높다. 수소 흡수력과 통기력이 낮아

장기간 수소에 노출돼도 취성 위험이 없다. -40도에서 85도까지 견디는 등 온도차에 따른 내충격성도 뛰어나다.

효성티앤씨는 해외 업체가 독점했던 나일론 소재 라이너 시장에 국내 최초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룹사의 수소 밸류체인 완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생산과 유통 뿐 아니라 저장과 활용 분야에서도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증명할 것.

효성티앤씨는 지난 6월 수소용기 국제 품질 규격(UN/ECE R134) 시험을 통과해 라이너 소재로서 기능과 품질, 기술적 완성도를 갖추게 되었고 수소연료탱크 제조업체 및 완성차 업체와 협력하여 상용 테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60~90도까지 내

은 및 내충격성 범위를 넓혀 상용 트럭의 튜브레일러부터 남극과 적도 등 전세계 바다를 항해하는 CNG 및 수소 선박에 이르기까지 라이너 소재로 나일론 적용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효성티앤씨가 세계 최초로 바다에 버려진 어망을 재활용한 나일론 리사이클 섬유 기술을 개발한 만큼, 향후 라이너 소재로도 리사이클 나일론을 적용해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 시장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조현준 회장은 "효성티앤씨의 나일론 라이너 소재 개발은 사양산업으로 치부된 섬유 산업에서도 기술력을 갖추면 첨단 수소 산업의 핵심 소재로 탈바꿈하는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며, "효성이 오랫동안 쌓아온 첨단 소재와 섬유의 기술력으로 미래 친환경 에너지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 차세대 제품 신품, 혁신인재 찾아 대학 간 삼성디스플레이

쇼케이스 트럭 이용 '채용 로드쇼' 기업설명회·채용 상담 등 진행

삼성디스플레이가 차별화된 인재를 찾아 나섰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전국 8개 대학을 찾아 '디스플레이 데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5톤 트럭을 쇼케이스 무대로 개조해 차세대 제품을 전시하는 '채용 로드쇼'다. 1일 경희대를 시작으로 14일까지 고려대와 서울대, 성균관대, 카이스트 등에서 진행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QD OLED와 함께 멀티 폴더블 제품인 플렉스S와 플렉스G, 플렉스 게이밍 등 차별화된 미래 기술을 소개한다.

또 개발 임원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 폴더블 OLED와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등 미래 기술을 소개하고 디스플레이 산업 성장성을 주제로 비전 특강도 진행한다.

행사를 찾은 원자는 서울대 재료공학부 학생은 "멀티 폴더블 제품을 실제로 보니, 폴더블 타입의 노트북이 대중화될 날도 머지않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디스플레이가 우리의 일상과 산업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흥미로운 분야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아울러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앞두고 전국 25개 대학에서 기업설명회와 채용 상담도 진행 중이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우리 회사가 OLED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며 혁신적인 미래 기술들을 선점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수한 인재들이 있었다"며 "최근 디스플레이 같



삼성디스플레이는 전국 8개 대학에서 '디스플레이 데이'를 열고 새로운 인재를 찾는다. /삼성디스플레이

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국가간, 기업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 확

보를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